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보고

제2차 한·중·일 NGN Working Group

이재섭 / TTA NGN 표준화 PM, TTA NGN 프로젝트그룹 의장, ETRI 초빙연구원
김형수 / TTA NGN 프로젝트그룹 간사, KT 기술조사평가단 선임연구원
김 선 /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팀장

1. 회의개요

- 일시 : 2004. 11. 11(목) ~ 2004. 11. 12(금)
- 장소 : 일본 동경 TTC 회의실
- 참석자 : 총 21명(한국 - 5명, 중국 - 7명, 일본 - 9명)
 - 일본 : Mr. Morita/KDDI(CJK NGN 부의장, ITU-T SG13 부의장) 외 8명
 - 중국 : Ms Liu Duo/MII(CJK NGN 부의장) 외 6명
 - 한국 : 이재섭(CJK NGN 부의장), 김형수(KT), 박영식(ETRI), 김철수(인제대), 김선(TTA)
- 회의의제 : NGN 표준화를 위한 3개국 현안사항 토론 및 공동 작업방향 정립
 - 제4차 ITU-T FG-NGN 회의에 대비한 3개국 공동 추진전략 논의 및 합의
 - 유럽국가의 IMS 표준에 대응하는 CJK NGN 대응전략 수립
 - CJK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에 공동 보고서 제출 및 상호협조 합의
 - 향후 NGN WG 진행과 운영을 위한 절차 합의

2. 서론

CJK 한·중·일 표준협력회의는 한국의 TTA, 중국의 CCSA, 일본의 TTC와 ARIB 4개 기관이 주축이 되어, IT 표준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동북아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서울에서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4th CJK 표준협력회의에서는 NGN WG이 결성되었으며, 1차 회의를 가졌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NGN WG의 활동범위,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 제1차 CJK NGN WG 회의내역
 - 각국의 NGN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NGN Testbed 구축전략 수립
 - ITU-T FG-NGN에서의 3개국 활동상황 분석
- 각국의 발표, 제안과 토론에 따라 향후 CJK NGN WG는 3개국간 NGN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공유와 더불어 ITU-T FG-NGN에서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협조와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경에서 개최된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이 토의되었으며, 2004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FG-NGN 회의 및 SG13 회의에 대한 3개국의 공동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의견개진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주요 회의내용

가. 제4차 ITU-T FG-NGN 회의에 대비한 3개국 공동 추진전략 논의 및 합의

지난 WTSA 2004에서는 FG-NGN이 SG 13에 속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FG-NGN의 존속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2004년 12월로 예정된 ITU-T SG13 정기회의에서 이 주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CJK 3국은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FG-NGN은 SG13에 속하되 독자적인 일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동기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 유럽국가의 IMS 표준에 대응하는 CJK NGN 대응전략 수립

ITU-T FG-NGN에서 채택한 Release approach는 현재 2004년 11월에 Release 1을 완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ETSI측의 IMS기반 자료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CJK 3국의 통신환경과의 적합성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고려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CJK NGN WG 회의를 통해 NGN release 1 이후의 release 2를 수립하기 위한 CJK의 요구사항과 전략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는 한편, 공동기고서의 제출을 통해 ITU-T NGN release 2 표준화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결의하였다.

〈표 1〉

관련 기고서	제출자	내용
2nd NGN WG-005	TTA	그간 FG-NGN의 성과와 노력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3개국의 주도권과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FG-NGN을 SG13과 독립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

〈표 2〉

관련 기고서	제출자	내용
2nd NGN WG-006	TTA	FG-NGN에서 진행중인 release approach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CJK 입장강화를 위해 Release 2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CJK 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
2nd NGN WG-007	TTA	ETSI IMS와 ITU-T NGN간의 구조 및 참조모델의 비교를 통해 보다 향후 CJK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명확한 인식과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
2nd NGN WG-008	TTA	현재 NGN release 1의 주요 내용을 채우고 있는 IMS에 대한 CJK 입장과 상치하는 이슈를 정리하고 CJK 시각에서 본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안

다. CJK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에 공동 기고서 제출 및 상호협조 합의

제4차 ITU-T FG-NGN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각국에서 혹은 상호간에 고려중인 주요 표준 이슈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Huawei와 한국의 KT에서는 end-to-end QoS 표준연구에서 가입자측 CPN/CPE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표준 연구를, 공동 기고서 제출을 통해 신규 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의 NTT와 한국의 KT는 자원제어를 위한 각 사업자간 QoS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새로 규정되어야 함을 합의하고, 공동 기고서 작성을 통해 신규 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1차 CJK NGN WG 회의와 이번 회의를 통해 본 회의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향후 본 회의의 진행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결과에 따라 향후 회의 진행방법과 일정 및 비용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4. 각국의 입장 및 NGN 표준화 전략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CJK NGN 표준협력회의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 및 NGN 표준화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관련 기고서	제출자	내용
2nd NGN WG-003	TTA	End-to-end QoS를 성취하기 위해 3개국간 QoS 관련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QoS 관련 내부정보의 교환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
2nd NGN WG-004	TTA	현재 ITU-T FG-NGN에서 진행중인 CJK 3개국간의 협력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 기고서 작성/발표 및 공동대응을 제안
2nd NGN WG-009	TTC	ITU-T FG-NGN에서 진행중인 표준 주제에 대해 일본측의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상호협력에 의한 공동 기고서 제출 및 공동 대응전략을 제안

라. 기타 : 향후 NGN WG 진행과 운영을 위한 절차 합의 등

가. 한국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중인 BcN 계획과 연계

〈표 4〉

관련 기고서	제출자	내용
2nd NGN WG-010	TTC	향후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CJK NGN WG의 구성과 진행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였다. 회의의 목적, 운영, 회의 일정 및 계획 원칙, 기고서 제출방법 및 비용에 관한 원칙을 합의하였다.
2nd NGN WG-011	TTA	한국에서 진행중인 BcN 프로젝트에서 최근 진행중인 BcN 참조모델을 설명하였다.
2nd NGN WG-001	TTC	본 회의를 위한 meeting agenda를 제안하였으며, 회의시작 시 검토를 통해 이번 회의의 아젠다로 채택하였다.
2nd NGN WG-002	TTC	본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참석자와 대표 기관에 대한 명단을 정리하였다.

하여 그간 활발한 활동을 통해 FG-NGN 의장(이재섭) 및 WG3 의장(김형수)을 비롯하여 4건의 Editorship을 확보하는 등 NGN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유럽의 ETSI와 북미의 T1 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지역표준화기구에 기반한 지역별 공동 의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CJK 회의를 통한 공동 의견제안 및 상호협조를 통한 주도권 유지가 가장 시급한 해결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FG-NGN에서의 주도권을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CJK NGN WG를 활용하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부터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일본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국제표준에서의 일정한 지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NGN 국제표준에서는 한국에 비해 조금은 뒤쳐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NGN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차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 또한 앞에서 언급한 유럽과 북미의 공동 대응전략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어 본 CJK NGN WG의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측에서 준비중인 기고서를 발표하고 의견을 구하는 한편 공동 기고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는 등 CJK NGN WG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다. 중국

CJK 3개국 중 국제 표준 활동에 가장 뒤늦게 참여한 국가이나, 최근 ITU 등을 비롯한 국제표준기구에

서 가장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CJK 회의에서는 실제적인 표준화 활동의 전개보다는, 현황을 주시하는 정도의 참여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본/한국의 오랜 시간동안의 국제표준 경험과 참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간 ITU-T FG-NGN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고려하면, 본 CJK에서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5. 결론

이번 한·중·일 NGN 표준협력회의는 11/30 ~ 12/3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NGN FG 회의와 이어서 12/7 ~ 12/17 개최되는 ITU-T NGN SG(SG13)를 앞두고 한·중·일 3국간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는 데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의 이재섭 박사가 ITU-T NGN SG 부의장을 계속 수임함과 함께, NGN FG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어, 국내에서 NGN 국제표준화를 리드하기에 좋은 위치에 서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국내 업체들은 아직 BcN을 먼 미래의 이야기 또는 시장상황을 선부르게 예측하고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런 분야로 바라보고 있어 표준화에 대해서 관망자세를 취하고, up-stream 방식의 표준화보다는 down-stream 방식의 표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표준화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한·중·일 표준협력회의에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내 환경에서는 BcN 표준화 추진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를 어떻게 산업화하느냐에 따라, 국내 IT 산업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3GPP라는 지역 표준화 협의체를 통해 차세대통신망 분야에

있어서 그 세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유럽진영과 IEEE, IETF라는 큰 표준화 기구를 등에 업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북미진영과 겨루기 위해서는 10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중국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본, IT 인프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시범 무대인 한국이 상호협력해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표준화를 리드하고, IT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업체들간 합

의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해야 하고, 한·중·일 표준협력회의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표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제3차 CJK NGN Working Group Meeting은 내년 3월, 일본에서 제5차 CJK 통합회의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는 보다 많은 국내 산업체에서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TTA**

